

한화석유화학 조세영 부사장 승진

한화그룹 임원 58명 승진인사 ... 김승연 회장은 한화 대표이사 복귀

한화그룹은 3월18일 이근포 한화건설 전무와 조세영 한화석유화학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임원 58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.

김남규 한화 무역부문 상무 등 4명이 전무로, 김동필 한화석유화학 상무보 등 18명이 상무로 승진했으며, 김효진 한화건설 부장 등 34명은 상무보로 승진했다.

화학 및 관련부문 승진 명단: <부사장> ▲한화석유화학 조세영 <전무> ▲한화 무역부문 김남규 <상무> ▲한화 화약부문 강신욱 민병만 이성택 ▲한화 무역부문 이승태 한영학 ▲한화석유화학 김동필 최금암 최선목 ▲한화종합화학 백진기 채사병 <상무보> ▲한화 화약부문 김기한 김영수 송호천 이영호 조용현 ▲한화 무역부문 김영철 장호경 ▲한화석유화학 김영한 김용만 김희철 이경석 임종훈 임중환 채영재 최규동 ▲한화종합화학 배인수 이승주 최영조 ▲한화폴리리머 송화선 ▲드림파마 전개식

한편,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그룹의 모회사격인 한화 대표이사로 복귀했다.

한화그룹에 따르면, 김승연 회장은 3월18일 열린 한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된 뒤 주주총회 직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.

김승연 회장의 한화 대표이사 복귀는 2002년 12월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화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지 2년3개월만이다.

한화는 2002년 인수한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던 김승연 회장이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한화 대표이사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5/03/21>